조계종-대각회 관계 정상화 '한발 앞으로'

공동합의문 의견 접근

조계종중앙종회 법인대책특위(위원장 혜창)와 재단법인 대각회 교섭추진위원회(위원장 흥교)는 8일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관계정상화를 위해 공동합의문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조계종 법인대책특위가 초안한 6개항을 중심으로 논의. △2월 21일 대각회 이사회 결의사항(본지 260호 2면)을 존중하고, 문화관광부의 정관 변경 승인을 얻는 데 조계종과 대각회는 공동으로 총력을 경주하며 △대각회는 정관 변경시 조계종 총무원장과 사전에 합의 △대각회는 조계종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계종은 대각회 소속 승려에 대한 권리 제한 조치를 해제 △대각회에서 요구하는 법인의 처우 문제(특별교구화 등)는 조계종 종헌 개정시 다루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대각회는 향후 용성문도회 소속 승려가 설립한 사찰에 한해 20개 이내 신규사찰만 받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종 법인대책위원장 혜창스님과 지욱 운달 법성, 대각회 교섭추진위원장 흥교, 효경 원성 자우스님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삼보정재 소송비로 새다니…

작년 종단사태로 24억 지출 '포교원예산 2배'

재가연대, 조계종 예산편성 의견서 발표

지난해 조계종 종단분규로 인해 지출된 소송비를 포함한 소위 '호법활동비'가 포교원 예산의 2배에 달하고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신축공사가 부실하게 관리되는 등 삼보정재의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공동대표 박광서)는 8일 발표한 '조계종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지난해 종단사태와 관련해 지출된 소송비 2억3784만원과 호법비 20억 8860만원, 청사경호용역비 8927만원 등 '호법활동비'가 24억여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같은 해 교육원 결산 총액 25억6000만원에 육박하고 포교원 결산총액 12억4천만원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밝혔다.

재가연대는 또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신축공사의 삼보정재를 부실 관리한 책임자의 규명을 위해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특별합동감사반'의 구성을 촉구했다.

재가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중앙승가대학 김포학사 신축과정에서 드러난 공사부실의 일차적 책임이 승가학원과 총무원등 종단내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있었음이 밝혀졌다"며 "관리감독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각종 불사 체계를 관리감독할 종단 시스템의 혁신, 삼보정재의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등 구조적 대안마련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가연대는 삼보정재의 여법한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종법(가칭 '삼보정재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자체적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종법 제정 및 입법청원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재가연대는 종단 예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종도들의 의견수렴 및 적극적인 예산반영 △實사업비 확충, 보조금의 운용과 관리 개선 △교육 및 포교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전답 지원사찰 지정 강구 △사업성격에 따라 부서의 업무 및 기능 재조정 △예산편성의 방식과 시기조정 및 예산 집행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광서 상임대표는 "김포학사 공사부실은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포교·교육·환경·복지·정보화 등 시대적 요구를 담는 불사가 될 수 있도록 불사풍토 전반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증 기초선원개원식이 6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렸다. 이번 봄안거에는 사미·사미니 128명이 입방했다.

사미니 기초선원 첫 개원

6일 동화사 산내암자인 부도암과 양진암에 사미니 기초선원이 처음으로 개원. 봄교과안거에 41명이 입방했다.

기초선원장 영진스님은 "사미니 기초선원의 개원으로 승가교육의 기회균등이 큰 진전을 이루게 됐다"며 "종단의 승가교육체계도 보다 완전한 모습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번 안거에는 8기부터 17기까지의 행자교육원 졸업생중 사미 87명과 사미니 41명 등 128명이 입방. 오는 4월3일까지 선경어 좌선의 조계선종사 인도불교사 부처님생애 좌선실수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윤호 기자

상임이사 종단 확정

종단협 회장단회의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총무원장)는 9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9개 상임이사 종단을 확정했다. 또 감사는 대한법화종 조동종 염불종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상임이사 종단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보문종 총지종 원효종 총화종 등이다. 종단협의회 정관에는 11명으로 상임이사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2개 상임이사 종단은 추후 선출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포교법 개정안 심의

조계종 종회 포교분과위

조계종 종회 포교분과위(위원장 지홍)는 7일 회의를 개최하고 군불교위원회 설치, 신도교육등을 골자로 하는 포교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포교분과위는 또 올해 포교원 예산안 19억여원을 심의했다. 이 예산은 전년대비 13.1% 증가한 것이다.

이번 종회에 상정될 포교법안은 신도관련사업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연수국을 신도국으로 직제개편하고, 신도입문과 교육, 수계와 위계관리업무를 비롯, 군·경찰, 교도소등 사회 각영역에 대한 포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원우 기자

승가대 이전 대책위 구성

김포학사 건축비 삭감·종합관리등 업무

중앙승가대학 김포학사 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특위를 열고 이전에 따른 운영방안등 향후 승가대학의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관할할 '중앙승가대 이전대책위'를 구성키로 결의하고 특위를 해체했다.

총무원 교육원 집행부, 종회의원, 교계 중진스님등으로 구성될 중앙승가대 이전대책위원회는 김포학사 대책 특별위원위원회가 결의한 △김포학사 건축비 삭감 △학교법인에 대한 종합관리대책 △감독업무 소홀 당사자 의법조치 △김포학사 운영비 및 이전비 마련등의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이에앞서 총무원, 종회, 재가연대, 승가대로 구성된 김포학사대책 특별위원회 합동조사단(단장 영담)은 합동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중앙승가대학의 부실공사 및 사업비의 과다 산정은 감독과 관리가 안되고 비계획적 비전문적으로 진행된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조사단장 영담스님은 "김포학사의 가장 큰 문제는 건축 기계설계등 크고 작은 부실시공이다"며 "건물의 안정성과 수명등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시공사의 해결방안 제시 및 재시공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교육원 합동감사반도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문서, 재정, 공사관리 문제의 근본 원인은 법인사무처의 관리능력 부재이다며 이로인해 토지처분금, 대여책임자의 회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무회계 시스템도 부실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교육원장, 포교원장등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법인사무처장을 종단소임자로 임명하고 사무처직원도 종무원을 파견하여 종단의 관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선학원 '수계식' 열렸다

13일 보광사 금강계단 조계종 "협상재개키로"

선학원은 사미·사미니계, 비구계 수계식을 13일 서울우이동 보광사 금강계단에서 봉행하고 사미 13, 사미니 24, 비구 10명을 배출했다.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은 6일 행자교육원 입제식에서 상무이사 성문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선학원 창건 80성상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오늘의 초발심을 불도를 이루는 그날까지 간직하여 집착에 끄달리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문스님은 "조계종에서 선학원 도제들의 입방을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행자교육원을 별도로 개설하게 됐다"며 "이후 강원 개설도 예정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선학원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문스님은 그러나 "2월초 총무원을 방문해 정대스님을 만났다"고 밝히고 "조만간 대화가 열리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해 협상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선학원의 행자교육원 개원 및 수계식 봉행과 관련, 조계종 법인대책특위(위원장 혜창)는 8일 회의를 열고 선학원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합의문 초안을 작성해 선학원에 보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 1면 '산'에서 계속

합천 해인사(주지 보광)와 녹색환경감시단(단장 홍성식)은 지역의 환경·시민단체와 해인골프장 건설을 저지시킨 여파를 몰아, 가야산 관통도로 건설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 석남사(주지 영운)는 가지산 일대 상업지구건설 개발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며, 문경 봉암사는 희방산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리조트, 온천 관광단지 및 규석광산을 일단 저지시켰고, 통영 용화사 주지 선곡스님은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미륵산지키기 운동을 이끌고 있다. 월정사(주지 현해)는 지난해에 이어 '열목어가 사는 청정오대산 가꾸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며,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본부장 박수관)은 금정산 동백동산에 동백나무 심기, 나무 가꾸기, 환경생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금정산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같은 '우리 산 지키기 운동'은 환경보존지구 신청을 통한 생태공간과 역사·문화·수행공간을 보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총체적 부실

신도교육준비위 회의

신도교육 어떻게…무엇을

"기본 안갖춘 신도 간화선 위주 교육 오히려 역효과"

기본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최고의 수행법인 '화두를 통한 간화선 수행'위주로 편성된 신도교육내용이 오히려 신도들에게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게 하는 역효과를 준다는 주장이 4일 개최된 조계종 포교원 신도교육위원회 4차회의에서 제기됐다.

이같은 선위주의 신도 초기교육은 불립문자를 표방하는 선과 문자및 분별에 의해 학습되는 교학이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되게 하여 갈등요인이 되고 있으며, '성불'과 '깨달음'의 목적이 실천이나 변화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김성철 박사는 "체계적인 불교학의 정비가 급선무며, 신도교육의 단계를 나누고 그 차제에 따라 신도교육을 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밝혔다.

또 신도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념과 목표를 대승불교의 보살로 정하고 일정한 교학적 내용을 습득한뒤 다양한 실천분야에 투입, 사회변화에 대처하고 사회를 선도하는 각종 사회 양상과 행동양태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지금까지 불교교리공부가 중국의 교판형태에 얽메여 문헌학적, 훈고학적 풍토로 말미암아 현대인들에게 멀어졌다며 현대인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며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실용적인 불교학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신도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교육자의 양성과 통일교재의 발간, 수행과 실천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개진됐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된 신도법에 따른 재가신도교육내용을 마련하기위해 전국 62개 불교교양대학을 대상으로 신도교육실태 의식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의식조사에서는 윤회에 대한 관점, 성불에 대한 믿음, 보시형태, 법회참석, 개인수행등 교양대학 학인들의 신행변화도 측정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3월말까지 설문내용을 취합하여 결과를 분석 발표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부처님 출가 (음.2.8)·열반절 (음.2.15)봉축
-제9차 일일 출가 수련대회-

고통받는 우리중생 건지시려 왕궁의 부귀영화 모두 버리고, 진리 찾아 출가하여 6년을 하루같이 고행하시어 마침내 보리수 아래서 도를 이루시고, 45년간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영원불멸 열반에 드신 우리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열반절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집으로부터 세속의 모든 번뇌로부터 뛰어나서 하루라도 출가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나 자신을 돌아보고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가하시어 밝은 삶의 지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수련일 : 불기 2544(2000)년 3월 19일 셋째일요일
오전 10 ~ 오후 4시
■대 상 : 청소년, 성인불자 300명 선착순
■회 비 : 성인 1만원, 청소년 5천원 (수료증, 수련자료집 기념품 배부)
■복 장 : 법복 준비되어 있음.
■문 의 : 대한불교 조계종 정법도량 신흥사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72-11
☎ 0339) 357-3916 / 357-2695 FAX)357-8687
※버 스 : 오전 9시 - 수원 북문농협앞, 역전에서 출발